

광양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 모집

구직단념 청년 맞춤형 지원으로 취업 재도전 기회 제공

광양시가 2026년 2월 말부터 구직단념 청년 130명을 대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에서 45세 이하의 구직단념 청년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없거나 폐업·대학 졸업·실업 급여 수급 종료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2월 말부터 11월까지 운영

되며, 참여자는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각 과정에서는 기초상담을 시작으로 ▲직무 탐색 ▲진로 개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이 제공된다.

참가자에게는 참여수당과 함께 과정별 이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단기 과정은 50만 원, 중기 과정은 150만 원의 참여수당과 이수 시 20만 원의 인센티브, 장기 과정은 250만 원의 참여수당과 이수 시 20만 원의 인센티브가 각각 지급된다. 또한 중·장기 과정을 이수하고 취·창업에 성공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5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

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민권HRD센터(☎ 061-793-49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취업 시장에서 멀어졌던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청년도전지원사업에는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광양민권HRD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 061-793-4944

신청대상

- 만 18세~45세 이하
- 퇴직금부터 4개월 경과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비보수, 실업급여 등 지원금 소진
- 대학졸업 후 6개월 경과
- 구직단념(신청) 상태

신청방법

- 1. 홈페이지(www.work24.go.kr) 신청
- 2. 전화 신청
- 3. 방문 신청

지원금

과정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
인센티브	2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총액	70만 원	170만 원	300만 원

118명의 청년이 참여해 구직 역량 강화와 취업 연계, 진로 설계 등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취업 준비의 기반을 다졌다.

광양/신선호 기자



구례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준공식 개회

미래농업 여는 배움의 터, 친환경농업교육관 증축 개관

구례군은 1월 21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교육관 대강의실에서 '미래농업을 여는 배움의 터, 친환경농업교육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례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은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돼 왔으나,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례군은 농업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관 증축을 추진했다.

이번에 증축된 친환경농업교육관

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조성됐으며, 1층에는 60석 규모의 소강의실, 2층에는 135석 규모의 대강의실과 휴게시설을 갖춘 복합 교육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농업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친환경농업교육관이 농업인의 역량을 키우고 구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준공을 통해 구례 농업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이번 친환경농업교육관 준공을 계기로 맞춤형 농업 교육을 확대 운영해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례/한정호 기자

강진군이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2026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6가구로, 총사업비 6천 818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택 내 단차 제거, 문폭 확대,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일부 외부시설 등 주거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진군,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본격 추진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16가구에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강진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이 가구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나 지자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는 제외된다.

신청 가구 중 적합한 주택 및 대상자에 대하여 상담과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김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이웃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총 32가구를 지원했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비롯하여 연중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고흥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머무는 경로당 만들기 본격 추진

경로당 운영·시설 지원 예산 49억 7천800만 원 투입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경로당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경로당 운영과 시설 지원에 49억 7천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및 부식비 등에 34억 5천4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노후시설 개선과 신규 시설 보강을 위해 전년 대비 38% 증가한 15억 2천 400만 원을 투입해 경로당 이용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계획이다.

개소별 경로당 운영지원은 등록 회원수와 일평균 이용자 수, 난방유형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운영비 연 118만 원~198만 원 ▲난방비 연 146만 원~168만 원 ▲부식비 연 38만 원~67만 원 ▲양곡은 연 7포~13포로 차등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혹한기에 대비해 상반기 난방비를

운영비, 부식비와 함께 1월 초에 신속하게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냉방비, 운영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안전 손잡이 설치, 물품 구입 및 수리, 임시 테이블 지원 등에 3억 2천 800만 원을 투입한다.

또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경로당 21개소에 전년 대비 2천200만 원 증액된 5억 7천400만 원을 지원한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경로당은 단순한 쉬어가는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이웃과 정을 나누고 하루의 온기를 느끼는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서도일 기자

무안군, 창포호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 탄력
변경 승인 통해 총사업비 108억 원 확보

무안군(군수 김산)은 환경부로부터 추진 중인 창포호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한 3차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포호로 유입되는 학계천과 신촌천 유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수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설치 대상지는 무안읍 학계천(1만5,059㎡)과 현경면 신촌천(7,730㎡) 일원으로, 정화습지 2곳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8억1,800만 원이다. 당초 학계천과 신촌천 설계비만 반영된 62억8,600만 원 규모였으나, 이번 변경 승인으로

신촌천 공사비와 토지 매입비,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건설사업관리비 등 45억3,200만 원이 추가 반영됐다.

무안군은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창포호 일원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며, 학계천과 신촌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 발주해 예산 절감과 공기 단축을 도모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규석 환경과장은 "이번 변경 승인을 계기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수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순천시, 더 두텁고 촘촘한 저소득층 보장 강화

제도 밖 위기까지, 취약계층 보호 만전

순천시는 올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해 생활안정을 돕고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최대 7.20% 인상되어 월 5만 5천원이 늘어나고, 4인 가구는 최대 6.51% 인상돼 월 12만 7천원이 증액된다.

또한 의료급여는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던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생계비 지원도 강화된다. 1인 가구 기준 월 73만 500원에서 78만 3천 원으로 인상되어,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수급자 탈락 가구나 돌발 위기사

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연계를 강화한다.

대상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또는 순천형 생활안정비를 1단계로 우선 연계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으로, 이마저도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순천SOS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권 밖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와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며,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먼저 발견하고, 단계별로 촘촘히 연결하는 안전망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복지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